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3.04.07(금) ~ 2023.04.13(목)

제공일시 2023 04 21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3.04.07(금) ~ 2023.04.13(목)

제공일시 2023 04 21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뉴스 클리핑 주간자료

1. 美 2032년까지 신차 67% 전기차로...친환경 전환 속도낸다

- 미국이 자동차 탄소 배출 기준을 강화해, 2032년까지 판매되는 차의 67%를 전기차로 대체할 방침임
- 환경보호청(EPA)이 12일 이같은 내용의 승용차 및 소형트럭 탄소배출 규제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규제안은 2027~2032년 총판매 차량의 배출가스 한도를 제한하면서, 자동차업체들이 사실상 2032년까지 전체 신차의 3분의 2를 전기차로 대체하는 방식을 취할 전망이다
- NYT는 교통수단은 미국에서 생성된 온실가스의 가장 큰 원천이라면서, 현재 5.8%에 불과한 전기차 보급률을 고려하면 EPA의 규제안은 도전적인 목표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음
- 다만,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걸림돌이 적지 않은데, 전기차는 여전히 비싸고, 미·중 갈등이 거센 가운데 배터리 등 핵심부품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이데일리, 2023.04.09) 김상윤 기자

2. EU 일부 항공투자 그린라벨 제안해 비판

- EU집행위원회가, EU의 지속가능 투자 목록에 항공 분야를 추가할지를 두고 수개월 동안 논쟁을 벌인 결과, 항공에 대한 특정 투자를 녹색으로 표시할 것을 제안했음
- EU집행위원회는 5일 발표한 제안서에서 항공 리스, 제조, 여객 및 화물 항공편에 대한 특정 투자가 분류법에 추가될 것이며, 기후변화 대처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류될 것이라고 밝혔음
- 상세한 환경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제조업체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제로인 항공기를 생산하거나, ICAO 한계치보다 낮은 탄소 배출량을 가진 항공기, 2028년부터 지속가능한 연료로 운행할 수 있어야 하는 등임
- 이에 대해 기후 활동가들은 비행기에 기후 친화적이라는 분류표를 붙이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을 비판했음

(Reuters, 2023.04.07) Kate Abnett 기자

3. EU, 지속가능한금융공시규제(SFDR) 개정안 발표

- 유럽의 3대 주요 금융규제기관이 모인 유럽감독당국(ESA)이 지속가능한금융공시규제(SFDR) 개정안을 발표했음
- EU SFDR은 지속가능성 리스크를 통합하고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며 금융 상품의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의 제공에 관한 투명성을 관리하기 위한 공시 규칙임
- SFDR은 2023년 1월부터 시행됐는데, 금융사가 자사의 상품을 지속가능성 수준이 가장 높은 제9조 펀드(다크 그린)에서 덜 엄격한 제8조 펀드(라이트 그린)로 스스로 하향하는 등 여러 문제들이 관측되고 있음
- 이에 ESA는 규정 템플릿의 레이아웃, 구조 및 언어에 관한 이해관계자 컨설팅을 제안했으며, 투자 상품이 지속 가능한 투자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지속 가능성 특성을 촉진하는지 여부, 지속 가능 및 분류체계에 부합하는 투자의 최소 금액 등에 관한 핵심 정보 대시보드를 개발했음
- 새로운 제안은 2023년 7월 4일까지 협의에 들어가며, 최종 보고서는 10월 말에 발표될 예정임

(ESGToday, 2023.04.13) Mark Segal 기자

1. 산업계 부담 줄인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사실상 확정

- 산업계 탄소 배출량 감축 부담을 덜어준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사실상 확정됐음
-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1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올해 제3차 전체 회의를 열고, 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했음
- 이날 의결된 기본계획안은 탄녹위가 지난달 21일 공개한 '초안'과 큰 틀에서 달라진 바 없는데, 전 정부 때 상향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유지하면서 산업계 탄소 배출량 감축 몫은 줄인 것이 골자임
- 탄녹위에서 의결된 기본계획안에는 초안과 달라진 부분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기후변화 적응법' 제정 추진 ▲민관 합동 기후테크 육성 종합 전략 마련 ▲저탄소 연료(E-fuel 등) 개발로 무공해차 전환 가속 ▲페트병 등 최종제품 재생원료 사용 목표를 설정 ▲중앙·지방 간 역할분담·협력방안 마련 ▲재생에너지 보급 지역 계획 수립 ▲학교 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등이 추가됐음

(연합뉴스, 2023.04.10) 이재영 기자
(이데일리, 2023.04.10) 김경은 기자
(전자신문, 2023.04.10) 최다현 기자
(매일경제, 2023.04.10) 홍혜진, 서진우 기자

2. 국내 전기차 공장도 최대 35% 세액혜택 준다

- 정부가 국내 전기자동차 전용 공장에도 반도체 시설 투자처럼 최대 35%의 세액공제 혜택을 줄 예정임
- 기획재정부는 전기차 공장의 핵심 공정 기술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관련 부처와 협의를 마쳤음
- 기재부는 조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올해 상반기 중 입법 예고까지 끝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시행령 개정 이후에는 전기차 공장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포함해 최대 35%의 세액공제 혜택이 가능해짐
- 이에 따라 국산 지능형 로봇이나 머신러닝·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자동화 설비 등 전기차 제조의 핵심 공정 기술이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면, 시행규칙에서 이를 사업화하는 시설 투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서울경제, 2023.04.12) 서민우, 김기현, 서일범 기자

3. 이상일, 200여개 반도체 기업들 모아 "국가산단 성공 위해 상생" 당부

- 이상일 경기 용인시장이 11일 기흥구 구갈동 ICT밸리 컨벤션 플로리아 홀에서 '2023 용인 반도체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기업들에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성공을 위한 협력을 요청했음
- 컨퍼런스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주), 램리서치 등 글로벌 기업과 도쿄일렉트론코리아(주), (주)테스, 서플러스글로벌(주) 등 소부장 기업이 모였음
- 이들 기업은 세계 각국의 반도체 관련 투자가 전쟁을 방불케 하는 현상에 주목하며, 국가적인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칩 메이커'라고 불리는 대기업과 관련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상생을 강조했다
- 용인시는 국가첨단산업단지 반도체 FAB 1단계 운영 전까지 반도체 고속도로 조성을 완료, 향후 증가하는 교통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공개하고 시내 처인구 원삼면에 SK하이닉스(주)와 50여개의 협력기업이 입주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 상황 등을 설명했다

(파이낸셜뉴스, 2023.04.12) 정충식 기자

1. 일본 미쓰비시금융그룹(MUFG), 부동산, 해운, 철강 배출목표 설정

- 일본 미쓰비시금융그룹이 부동산, 철강, 해운 부문 대출의 배출 감축 목표를 설정했으며, 석유 및 가스 사업으로부터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대출금이 상환되는 것과 맞물려 감소했다고 밝혔음
- 미쓰비시금융그룹은 일본에서 탄소집약적인 산업의 중요한 대출기관으로서, 오는 주주총회에서 기후 노력에 관한 주주투표를 앞두고 있음
- 미쓰비시금융그룹은 전체 자금조달 포트폴리오의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줄이기로 약속했으며 석유, 가스, 발전 부문의 목표치 설정에 이어 이번에는 해운, 철강, 부동산 부문의 목표치를 정했음
- 미쓰비시금융그룹은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2020년 평방미터당 65킬로 배출량에서 44~47킬로로 줄이고, 주거용은 27킬로에서 23킬로 줄이는 것이 목표로 했으며, 철강은 2019년 대비 22% 감축, 해운업은 2008년 기준 대비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국제해사기구 목표를 연계했다고 밝혔음

(Reuters, 2023.04.11)
David Dolan, Simon Jessop 기자

2. 애플, 탄소제거기금 2억달러 추가 투자

- 대기 중 탄소를 직접 제거하는 프로젝트에 투자하기 위해 애플은 2년 전 설립했던 펀드에 대한 투자를 2배 더 늘린다고 밝혔음
- 애플은 초기에 2억달러 투자하기로 하며 2021년 설립된 '리스토어 펀드(Restore Fund)'에 최대 2억달러를 추가 투자할 예정임
- 애플은 2030년까지 전체 공급망과 모든 제품의 LCA를 통해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번 투자에 따라 연간 100만톤의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겠다는 기존 목표의 2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음
- 애플은 골드만삭스그룹과 함께 이 펀드를 출시했는데, 지난 2년간 비영리단체인 'Conservation International'과 함께 브라질과 파라과이의 산림자산에 투자한 바 있음

(Reuters, 2023.04.12) Yuvraj Malik 기자

3. "AI, 잠재적 위험 우려 있다"…美바이든 정부, 규제안 마련 착수

- 이날 미 상무부 산하 국가통신정보관리청(NTIA)은 연방 관보를 통해, 'AI가 해를 끼치지 않고 의도한 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AI에 책임성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학자·업계 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고지했음
- 백악관의 공식 기술 자문기관인 NTIA는 향후 60일간 '챗GPT 등에 책임성을 부과하는 방법' '연방 차원의 AI 규제법의 필요성' 등을 청취할 예정임
- 관건은 바이든 행정부가 행정명령 또는 입법 등을 통해 AI에 관한 규제를 도입할지 여부임
-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일 과학기술자문위원회 회의에서 국민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AI로 인한 잘못된 정보를 다루기 위한 '가드레일'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음

(중앙일보, 2023.04.12) 이유정 기자

1. 현대차그룹 "2030년까지 국내 전기차 분야에 24조원 투자"

- 현대차그룹은 11일 고객 맞춤형 전기차 전용 공장 기공식과 함께, 현대차·기아·현대모비스 등 3사가 전기차 분야의 국내 생산·수출 확대와 연관산업 강화를 위해 오는 2030년까지 8년 동안 국내에 24조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 현대차그룹은 대규모 국내 투자로 전기차 산업 고도화 등 글로벌 미래 자동차산업 혁신 허브 역할을 강화해, 국내 전기차 연간 생산량을 2030년 151만 대(수출 92만 대)로 확대할 계획임
- 이를 통해 글로벌 전기차 생산량을 364만 대로 계획하는 등 2030년 전기차 글로벌 판매 톱3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으며, 우선 국내 전기차 생산능력 확대를 위해 고객 맞춤형 전기차 전용 공장 신설과 함께 기존 공장의 전기차 전용 라인 전환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또, 차세대 전기차 전용 플랫폼 개발과 제품 라인업 확대, 핵심 부품과 선행기술 개발, 연구시설 구축 등 연구개발에도 집중 투자함 협력사와 함께 국내 기술 개발도 활성화할 계획을 소개했음

(아이뉴스24, 2023.04.11) 김중성 기자
(데일리안, 2023.04.11) 박영국 기자

2. LG화학, 차세대 플라스틱 만든다

- LG화학이 석유가 아닌 바이오 원료를 기반으로 하는 차세대 플라스틱 사업 확대에 나선다고 밝혔다
- LG화학은 이날 미국의 친환경 연료 전문업체인 지보(Gevo)와 2026년까지 '바이오 프로필렌'(Propylene)을 상업화하기 위한 공동연구개발(JDA) 체결식을 가졌음
- 이번 협약에서는 지보 측이 바이오 에탄올(Bio-Ethanol)로 프로필렌을 만드는 기술을 제공하면, LG화학이 공동 연구개발과 공장 구축을 통해 상업화에 나서는 계획이 담겼음
- 바이오 프로필렌을 생산하는 'ETO (Ethanol to Olefin) 기술' 관련 상업화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것이 개발되면 LG화학은 고객사에 100% 바이오 기반의 제품을 공급하여 기존 제품보다 90% 이상 탄소저감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헤럴드경제, 2023.04.13) 양대근 기자
(글로벌경제신문, 2023.04.13) 박종준 기자

3. LG U+·누빅스·글래스돔, '탄소배출 관리 플랫폼' 제공

- LG유플러스가 밸류체인 플랫폼 사업자 누빅스, 탄소배출 관리 솔루션 기업 글래스돔코리아와 '탄소배출 관리 및 밸류체인 플랫폼 사업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음
- 3사는 밸류체인 플랫폼 'VCP-X'와 이를 기반으로 한 'LCA 솔루션'을 기업전용망에 결합, 수출기업에 확산해 나가기로 했음
- 누빅스는 VCP-X를, 글래스돔은 LCA(전생애주기평가) 솔루션을 개발·상용화하고 있으며, LG유플러스는 고객사 제안 및 기업전용망을 구축·운영하는 역할을 맡음
- 3사는 국제 인증기관과 함께 LCA 솔루션 인증 제도를 추진해, 솔루션을 도입한 기업들이 별도의 추가 인증 없이 환경규제에 대응하도록 지원할 방침임

(현대경제신문, 2023.04.10) 하지현 기자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기간 : 2023.04.07(금) ~ 2023.04.13(목)

제공일시 2023 04 21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포장재 업계, EU포장재 재활용 목표 달성 위한 지원 요구

- 유럽 포장환경기구(EUROPEN)의 홍보담당이사 마르치아 스코펠리티는 지난달 30일 브뤼셀에서 열린 회의에서 “포장재 생산자로서 우리는 이 의무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지만, 재활용 목표를 달성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유랙티브가 전했다.
- 지난 11월 유럽위원회가 발표한 포장 및 포장재 폐기물 규제에 따라 2030년까지 EU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포장재는 재활용성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어야 함. 또한 규정에 따라, 모든 포장은 2035년까지 규모에 맞게 재활용되어야 함.
- 그러나 많은 EU 국가가 재활용률을 목표에 맞게 높일 만큼의 인프라를 아직 갖추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인프라의 부재는 수거 단계를 비롯한 폐기물 분류 및 처리 과정 전반에 해당하는데, 그 결과 현재 EU에서 수거된 폐기물의 대부분이 해외로 보내져 매립이나 소각되고 있음.
- 실제로 EU 통계청 유로스타트(Eurostat)에 따르면, 2020년 EU가 수출한 폐기물량은 3270만 톤으로 2004년에 비해 75% 증가했음.
- 또한 유럽투자은행(European Investment Bank)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2025년까지 매년 1000만 톤의 플라스틱 재활용품을 최종재에 포함한다는 유럽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67억 유로(약 9조 6000억원)에서 86억 유로(약 12조3000억원)의 투자 격차를 메워야 함
- 마르치아 스코펠리티는 이 분야에서 몇 가지 추가 조치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위원회가 재활용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19개 회원국에 조기 경고장을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음.
- 현재 EU에 닥친 플라스틱 재활용 목표 달성은 가치 사슬 전체에 걸친 수량과 품질의 문제임. 유럽 재활용산업연맹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단 10%만이 재활용되고 있으며, EU에서는 플라스틱 포장재의 재활용이 38%가량 이루어지고 있음.
- 이는 종이 포장재가 82%의 재활용률을 달성한 것과 비교하면 플라스틱 포장재의 재활용률은 저조한 수준임.
- 한편 재활용 업계가 목표를 달성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비용임. 현재 플라스틱을 원료로 생산하는 것이 재활용 플라스틱을 이용하는 것보다 더 저렴하기 때문임. 이에 대해 유럽 재활용 지부(European Recycling Industries' Confederation)의 회장 소피 시카드는 재활용 플라스틱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비용 문제에 집중해야한다고 지적했음.
- 또 재활용 업계는 더 높은 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 및 지방 정부의 폐기물 수거 노력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럽의 음료팩과 환경을 위한 얼라이언스(The Alliance for Beverage Cartons and the Environment)는 음료캔의 경우 재활용률이 70%에 도달하려면 수거율이 최대 90%까지 올라가야 한다고 주장했음.

[\(Euractiv, 2023.04.06\) Valentina Romano 기자](#)

[\(임팩트온, 2023.04.10\) 최동훈 기자](#)

- 이에 더해 노르웨이의 재활용 회사 톰라(TOMRA)의 볼프강 링겔은 “현재 EU 전체에서 폐기물 수집 및 분류가 일관되지 않으며, 인프라 개발에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링겔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분리수거, 혼합 폐기물의 분류, 보증금제(Deposit Return System)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 전반적인 시스템의 구축을 제시했음
- 또 링겔은 분리수거만으로는 플라스틱 재활용 목표치인 55%를 넘지 못할 것이며, 목표 달성을 위해 혼합 폐기물의 분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 실태에 대해 “우리는 플라스틱을 미친 듯이 태우고 있다. 이는 지속 가능한 접근법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